

연주분야의 회고와 전망

曹 偉 敏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目 次》

- | | |
|------------|------------|
| 1. 독주활동 부문 | 4. 해외활동 부문 |
| 2. 관현악단 부문 | 5. 채보활동 부문 |
| 3. 교육 부문 | |

이번에 개최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창설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일반 학술발표회라기 보다는 각 분야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명제가 그러하듯이 그간의 치적을 보고하고 회고하여 보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같기에 연주분야의 원고는 이러한 방향으로 작성되어졌고 또한 발표됨을 전제한다.

본교에 국악과가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배출된 졸업생의 수는 총 577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가 189명, 여자가 388명이 된다.

이들 577명의 동문중에서 이론과 작곡전공을 제외한 실기전공자는 전체수의 70%를 상회한다. 이들이 악계로 진출하여 활동한 그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독주활동 부문

동문중 최초의 독주회는 가야금독주회로 이재숙(1회)에 의해 1964년 10월 13일 서울 음대 리사이틀 홀에서 개최된 것이 그 효시가 된다.

이어 두번째 독주회로는 1966년 6월 3일 서울 음대 리사이틀 홀에서 개최된 김정자(2회) 가야금독주회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2회의 독주회 이후에 동문들에 의해 개최되었던 독주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이재숙(1회) 가야금 독주회 | 1966. 10. 28 | 서울 음대 리사이틀 홀 |
| 김정자(2회) 가야금 독주회 | 1968. 5. 30 | 서울 음대 리사이틀 홀 |
| 김정자(2회) 가야금 독주회 | 1972. 4. 18 | 서울 음대 리사이틀 홀 |

백옥자(13회)	가야금 독주회	1974.	3.	21	한국일보사 12층 홀
이재숙(1회)	가야금 독주회	1975.	4.	14	예술극장
백혜숙(13회)	가야금 독주회	1975.	11.	17	국립극장 소극장
조청자(2회)	가야금 독주회	1976.	5.	24	국립극장 소극장
박정희(7회)	가야금 독주회	1977.	10.	7	국립극장 소극장
양승희(11회)	가야금 독주회	1977.	10.	18	국립극장 소극장
조청자(2회)	가야금 독주회	1978.	4.	17	유네스코 회관
강사준(5회)	해 금 독주회	1978.	11.	29	국립극장 소극장
양승희(11회)	가야금 독주회	1979.	4.	21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김선한(4회)	거문고 독주회	1979.	4.	25	독일문화원 강당
문재숙(14회)	가야금 독주회	1979.	9.	28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성심은(13회·가야금)	최삼범(16회·대금)	2인 음악회			
		1979.	10.	22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심인택(15회)	해 금 독주회	1979.	11.	16	국립극장 소극장
김순옥(15회)	대 금 독주회	1979.	11.	26	이화여대 중강당
김정자(2회)	가야금 독주회	1980.	4.	8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김인제(12회)	가야금 독주회	1980.	9.	29	명동 유네스코회관
양승희(11회)	가야금 독주회	1980.	11.	1	공간사랑
박정희(7회)	가야금 독주회	1980.	12.	16	명동 유네스코회관
조운조(12회)	해 금 독주회	1981.	3.	31	국립극장 소극장
양경숙(17회)	해 금 독주회	1981.	5.	15	국립극장 소극장
박현숙(14회)	가야금 독주회	1981.	10.	20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이효분(9회)	가야금 독주회	1981.	11.	4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이명희(10회)	가야금 독주회	1981.	12.	9	국립극장 소극장
이재숙(1회)	가야금 독주회	1982.	4.	16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김혜숙(15회)	가야금 독주회	1982.	5.	7	국립극장 소극장
이재화(14회)	거문고 독주회	1982.	5.	19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정해임(18회)	가야금 독주회	1983.	5.	26	국립극장 소극장
성심은(13회)	가야금 독주회	1983.	12.	23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조운조(12회)	해 금 독주회	1984.	11.	20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양연섭(13회)	가야금 독주회	1984. 11. 27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성심은(13회)	가야금 독주회	1985. 12. 16	남도 예술회관
이재화(14회)	거문고 독주회	1985. 10. 18	국립극장 소극장
이창홍(7회)	거문고 독주회	1985. 11. 1	국립극장 소극장
강사준(5회)	해 금 독주회	1985. 12. 6	국립극장 소극장
박인기(15회)	피 리 독주회	1986. 4. 25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김혜선(13회)	가야금 독주회	1986. 6. 12	
이동복(14회)	대 금 독주회	1986. 9. 24	동아문화 센터
최지애(17회)	가야금 독주회	1986. 11. 21	
김선한(4회)	거문고 독주회	1986. 11. 27	이화여대 김영희 기념연주홀
조운조(12회)	해 금 독주회	1986. 11. 28	이화여대 김영희 기념연주홀
문재숙(14회)	가야금 독주회	1986. 11. 29	문예회관 대극장
홍경희(16회)	가야금 독주회	1986. 12. 6	공주국립박물관 강당
박인기(15회)	피 리 독주회	1987. 4. 10	국립극장 소극장
이효분(9회)	가야금 독주회	1987. 11. 27	국립극장 소극장
임재원(18회)	대 금 독주회	1987. 12. 1	한양대 백남음악관
이명희(10회)	가야금 독주회	1988. 7. 9	국악당 소강당
이재숙(1회)	가야금 독주회	1989. 3. 24	에음홀
양연섭(13회)	가야금 독주회	1989. 5. 19	에음홀
박현숙(14회)	가야금 독주회	1989. 6. 9	국악당 소강당
문재숙(14회)	가야금 독주회	1989. 10. 20	국악당 소강당

총 55회

2. 관현악단 부문

본고 국악과 출신으로서 국악관현악단이나 기타 국악단체에서 활약하는 동문으로는 국립 국악원의 경우 원장 이승렬(5회·가야금), 장악과장 박일훈(13회·작곡) 그리고 장악과에 근무하는 이재형(24회·거문고), 연구실에 근무하는 윤이근(16회·피리), 윤명원(19회·작곡), 최 현(19회·이론) 등이 있고, 연주원으로

피리에는 양명석(19회)·이 영(25회)·정상열(25회)·임병옥(23회)·이건희(24회)·황

규상(27회)·박종설(12회)

대금에는 조성태(11회)·김철호(17회)·이철이(17회)·임진옥(23회)·정희석(24회)·채조병(24회)·노부영(25회)

해금에는 이규석(3회)·양정숙(17회)·이창신(18회)·윤문숙(22회)·변중혁(23회)·김주남(23회)·홍기정(25회)

가야금에는 임재심(15회)·유연숙(17회)·채성희(18회)·이지영(26회)·지애리(26회)·한진(27회)·김미숙(27회)

거문고에는 이오규(17회)·채주병(18회)·홍선숙(18회)·양승경(27회)·채은선(26회) 등이 활약하고 있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는 상임지휘자 김용만(11회)을 위시하여 피리에 김근섭(21회)·김현주(21회)·계윤희(26회), 대금에 이경희(16회)·김현숙(21회)·해금에 송정희(18회)·이경주(20회)·김민숙(25회), 가야금에 박정희(7회)·안혜란(12회)·이연희(16회)·채정희(20회)·김일문(21회)·김영희(24회), 거문고에 이혜경(22회)·허정옥(25회)·조위민(1회), 아쟁에 우종양(12회) 등이 활약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국악관현악단에는 악장 김정수(9회·대금)와 양연섭(13회·가야금)을 위시하여 피리에 강영근(19회)·홍종선(20회)·김상철(24회), 대금에 임재원(18회)·곽진우(19회)·안성우(22회)·유기준(23회)·김의중(23회)·이정규(26회), 해금에 주영위(18회)·안희봉(20회)·성의신(21회)·정수년(24회)·조일(24회)·인영자(26회), 가야금에 최지애(17회)·민의식(24회)·안윤길(22회)·정정주(22회)·송안나(22회)·노부영(23회)·김정희(24회), 거문고에 이창홍(7회)·김영기(19회)·김성경(19회)·김희경(23회)·장은선(23회)·함유정(24회)·김선옥(26회) 등이 활약하고 있다.

중앙국악관현악단에는 부지휘자겸 대금연주자로 있는 박상진(15회)을 위시하여 김왕희(26회·대금)·이형환(24회·거문고)·홍제동(26회·가야금) 등이 활동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는 유경조(16회·대금)·신혜영(19회·거문고)·경덕애(22회·가야금)·이연주(25회·피리) 등이 있고, 대구시립국악관현악단에는 김영순(21회·거문고), 그리고 전북도립국악원에는 노복순(25회·가야금), 한국정악원 국악관현악단에는 이재익(26회·대금)·변제남(27회·대금)·정춘임(27회·해금)·정길순(27회·해금)·김영숙(27회·거문고)·허영(27회·거문고)·김은진(26회·가야금)·천양자(27회·가야금) 등이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국립국악원의 경우 우리 동문의 수가 원장 이승렬(5회)을 필두로 39명에 달하며,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는 19명, KBS국악관현악단에는 31명, 기타 악단의

수 18명을 포함하여 107명의 동문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각 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 교육 부문

본교 국악과 출신 실기전공자 동문 가운데 교육계에 투신하여 후학을 지도하는 동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교 전임교수

서울대 : 이재숙(1회·가야금)·김정자(2회·가야금)·강사준(5회·해금).

한양대 : 양연섭(13회·가야금).

이화여대 : 김선한(4회·거문고)·홍종진(10회·대금)·조운조(12회·해금)·박인기(15회 피리)

단국대 : 서한범(7회·피리)·이상용(4회·대금)·조주우(8회·해금)

추계예대 : 김정수(8회·해금)·이효분(9회·가야금)·김정수(9회·대금)

서울예전 : 하주화(15회·거문고)

경북대 : 윤명구(14회·피리)·김덕환(3회·해금)·정해임(18회·가야금)·김경배(7회·거문고)·이동복(14회·대금)

청주대 : 이명희(10회·가야금)

영남대 : 최문진(15회·가야금)

부산대 : 백혜숙(13회·가야금)·배양현(17회·피리)·송권준(16회·해금)

전주우석대 : 심인택(15회·해금)·김철진(15회·가야금)·신용문(16회·대금)

전남대 : 성심은(13회·가야금)

대학교 외래교수

양송희(11회·가야금)·김인제(12회·가야금)·박현숙(14회·가야금)·문재숙(14회·가야금)·조청자(2회·가야금)·나현숙(16회·가야금)·최수욱(4회·가곡)·김해숙(15회·가야금)

이재화(14회·거문고)·정화순(16회·거문고)·백효숙(16회·거문고)·신혜영(19회·거문고)

유경조(16회·대금)

고등학교 전임교사

국악고등학교

교 장 : 윤미용(7회 · 가야금)

피 리 교 사 : 김성배(7회) · 박문규(15회)

대 금 교 사 : 최삼범(16회)

해 금 교 사 : 강덕원(11회) · 안재숙(21회)

가야금교사 : 김상순(20회) · 안승희(23회)

거문고교사 : 황해영(23회)

국악예술학교

가야금교사 : 김순옥(15회)

4. 해외활동 부문

본교 국악과 출신 실기전공자 동문들의 해외활동은 활동자 수와 그 회수로 보아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악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39명의 동문들은 미개국을 제외하고는 우리 전통음악을 전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많은 동문들의 빛나는 해외 활동이 있었으나 본교에서는 제한된 지면관계로 국악과 1회인 이재숙동문과, 2회인 김정자동문, 그리고 미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1회인 박상원동문의 활동만을 요약하고자 한다.

이재숙(1회 · 가야금)

1967 일본 오사까대학초청 가야금독주

1976 대만에서 열린 Aspac 국제회의에서 가야금독주

1978 태국 · 방콕에서 열린 Asia 작곡가 연맹 총회에서 가야금 독주

1979, 1981, 1983 격년제로 3회에 걸쳐 영국 Cambridge 대학교에서 개최한 Summer School 에 초청교수로 있는 동안 음악대학에 속해 있는 Ethnomusicological Audio Visual Archive에서 제작하는 The Oriental and African Music Project에서 가야금과 장고를 전혀 모르는 학생이 숙달될 수 있도록 교육용 Film을 제작하였으며, 이 비테오메이프 제작을 위하여 가야금과 장고를 지도함.

1979 Cambridge대학교 Music Faculty Concert Hall에서 독주회

- 1979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25차 국제민속음악학회의 가야금 워크샵에서 강의 및 독주
- " 영국 Durham에서 열린 Oriental Music Festival에서 가야금 독주
 - " Cambridge 대학교에서 가야금 음악의 음반제작을 위해 녹음
 - " 미국 하와이 East West Center 주최로 강연 및 독주
 - " 하와이 대학교 Center for Korean Studies와 East West Center공동 주최로 하와이 대학교 Orvis Music Auditorium에서 이병원(2회)의 협원과 반주로 독주회
- 1981 불란서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가야금 독주회
- 1983 영국 London Cambridge에서 가야금 독주회
- " 독일 브레멘·하노버에서 가야금 독주회
 - " 독일 쾰른에서 한·독수교 백주년 기념 독주회
 - " 대만에서 열린 동아시아 예술절에서 독주회
- 1985 이란에서 개최된 세계국제음악회의에서 독주
- 1986 미국 LA에서 KBS LA지국 문화관 개관기념 연주회에서 독주
- 1987 일본 동경에서 주일 한국문화원 주최 독주회
- " 뉴욕·워싱턴·동경에서 Baroque Ansemlle과 협연

김정자(2회 가야금)

- 1977 정농악회 발족
- " 주불란서 한국문화원에서 독주회 정농악회와 합주
 - " 주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독주회(뉴욕타임즈 격찬을 받음)
- 1978 아시아 전통음악제에서 독주(대만)
- 1979 아시아 작곡가대회에서 독주(홍콩)
- 1982 영국 Durham 대학에서 개최한 Oriental Music Festival에서 독주와 정농악회와 합주
- " 불란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독주
- 1983 미 하버드 대학교와 브라운대학 피츠버그대학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에서 독주회
- 1985 아시아 전통음악 작곡가 대회에서 독주(윌리엄 대학교에서 개최)
- " 홍콩시티 주최로 열린 한국(가야금)·중국(쟁)·일본(고도) 합동 연주회에서 연주

1989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 전통음악 워크숍에서 독주

박상원(11회·가야금)

1978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과 La mama국장이 공동 주관한 「세계 아동의 해」 민속예술 세미나 및 Work Shop에 한국대표로 참가. UN국제학교에서 민속예술 강의

1978 Asia학회 주최로 미국 하와이대학교수 이병원(2회)과 재미무용가 이선옥과 「한국의 불교의식」(Buddhist Ritual of Korea) 강의 및 연주

1979 미국 뉴욕시 The Down Home Concert Hall에서 일본의 고도연주자 마리코 호소가와와 「동양의 음악」 2인 음악회

” 미국 뉴욕시 국 문화회관에서 독주회

” 미국 뉴욕시 International House Auditorium의 「민족의 밤」에서 독주

” 프랑스 파리 Musee Guimet Hall에서 독주회

” 네델란드 Dordrecht시 Cuturele Road Concert Hall에서 독주회

”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시의 Soelerijm Concert Hall에서 독주회

—중 략—

” 독일의 베를린시 Einstein Concert Hall에서 독주회

” 스웨덴 스톡홀름시의 MusiKmusset Concert Hall에서 독주회

—이하생략—

5. 채보활동 부문

이제숙(1회·가야금)

1971 김죽파류·강태홍류·김병호류·김윤덕류·성금련류(전바탕)

1980 최옥산류(전바탕)

1982 김죽파류 증보판

1987 성금련류 전바탕 증보

강사준(5회·해금)

1972 한범수류(전바탕)

1985 한범수류 전바탕 증보

조위민(6회·거문고)

1967 신패동류 거문고 산조(전바탕)

1968 김운덕류 거문고 산조(전바탕)

〃 백낙준제 거문고 산조(전바탕)

이재화(14회·거문고)

1986 한갑득류(전바탕)

문재숙(14회·가야금)

1989 김죽파류 전바탕 채보

김해숙(15회·가야금)

1987 최옥산류·심상건류·김죽파류·김병호류·강태홍류·박상근류·서공철류를 진양
조만 채보

한일섭류·박종선류 아쟁산조 전바탕 채보

전용선류 단소산조를 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채보

1988 심상건류 전바탕 채보

정화순(16회·거문고)

1989 한갑득류 전바탕 채보

「연주분야의 회고와 전망」에 대한 논평

李 在 淑

(서울대)

조위민선생이 발표한 연주분야의 회고와 전망은 그가 우리 동문 모두의 성장 모습을 정리해 주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악과 창설 이래 30년의 역정은 학문적, 예술적 기반이 거의 없었던 국악을 학문성이나 예술성에서 당당한 한분야로 확립하는 창조적 성장의 과정이었다. 조위민선생이 발표한 내용은 이러한 歷程을 時系列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 서술해 줌으로써 우리 국악과 발전의 발자취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조감도를 그려주었다.

모든 사물의 진정한 성취에는 王道가 없듯이 우리 국악과 30년의 발전과정도 역시 험준함과 어려움이 교착되어 온 것이었음을 실감하게 하는 끈질긴 도전의 행로였다 할 것이다.

음악에 있어 연주란 곡(작곡)의 가치와 예술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최근 창작곡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데 그 역시 연주에 의한 예술성의 확인을 통해서만 실제적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에 있어 연주가 갖는 중요한 의의를 발견하게 되며, 국악과 30년 연주사의 정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이해하게 된다.

여기에 발표된 국악과 30년 연주사의 軌跡을 살펴 보면서 그 과정은 결국 연주의 형식과 기법의 예술화 정치화 현대화의 길을 향한 정진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三十而立」이라고 우리 국악과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움직일 수 없는 기반을 굳건히 굳히게 되었다. 국악과 자체의 괄목할 발전을 이룩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연주활동에 있어서도 질·양 양면으로 장족의 발전을 해왔다. 우리는 국악과 창설 30년을 맞이 하고 새로운 발전기를 전망 하면서 그동안 연주형태의 발전이 과연 국악의 예술성을 심화 하는데 충분히 기여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예술성의 심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주형태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적인 개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가 여기서 제기해 보고 싶은 과제이다.

「연주분야의 회고와 전망」에 대한 논평

趙 運 朝

(이화여대)

여러가지 資料 정리에 공을 들이며 대부분 同門들의 연주활동들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조금 補充이 되었으면 하는 點들이 눈에 띈다.

577명이라는 졸업생 전원의 現業을 조사하였더라면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흥미로운 基礎資料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된다.

또한 각종 소규모 악단들 예를들면 정농악회·울려악회·정가악회·원울악회·한가락회·국악선교회 등등의 활동상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각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수도 몇 사람 빠진듯 하고(전북대:정희천, 서울교대:이동남, 공주사대:조성보, 중앙대:최태현 등) 연주 단체 중에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나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서울대 국악과 졸업생들이 연주계 뿐만 아니라 국악계 전반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무거워 타의 추종을 不許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전국 14개 국악과를 개설한 대학을 중심으로 배출된 인원들의 연주활동 영역이 앞으로는 차츰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예를들어 서울대 출신의 현재 대학전임들이 모두 정년퇴직 할 때 쯤이면 국악계의 판도는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사명감을 느끼고 후배들을 서울대에서 배출해야 할 것인데 이 點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기전공 서울대 국악과 출신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악계에서 선도적인 중추의 역할을 과연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어떤 의미로 이 질문은 발표자 뿐 만이 아니라 서울대 졸업 동문과 재직교수 모두에게 또한 본인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물음인지도 모르겠다.